

“전자책 시대를 준비하자”

김경일 | 김포대 디지털출판과 교수

전자책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전통적인 출판산업의 구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문명이 요구하는 핵심분야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콘텐츠다. 자본과 기술은 출판계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분야지만,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출판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다. 출판사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제휴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이책이 가진 송신자 중심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전자책은 종이책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한 개발업체가 내놓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

1980년대 말부터 출판의 전산화가 추진되면서 '전자출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자주 있어 왔다. 기술적인 면에 집착한 일부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전자출판의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시도해 온 것이다.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자 이번에는 전자책의 정의와 분류를 위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출판산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한 전자책의 정의나 분류가 아니라, 그것이 출판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동시에 어떤 과장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잠재력 풍부한 전자책 시장

상당수의 출판산업 종사자들이 집착하고 있는 종이책의 한계를 전자책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종이책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단위 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오늘날, 종이책은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일면성이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쇄된 책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구조 역시 송신자 중심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전자책은 종이책의 각종 단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비선형적 멀티미디어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책은 단순히 전통적인 종이책을 디지털화했다는 의미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자책이 등장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

년이 지나면 전자책이 미국 출판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경이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가 사실상 완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 유통상의 지체현상이 해소된다.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 전자책의 도안이나 뷰어, 그리고 인터페이스 등이 발전함으로써 그 품질이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될 것이 확실하며, 이를 중심으로 전자책의 세계적 표준이 완성될 것이다. 동시에 구매계층이 확대될 터인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세대가 대표적인 구매층이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이미 1998년에 일본전자책컨소시엄(JEC)을 구성했고, 우리나라도 작년엔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을 구성했다.

전통적 출판산업의 구조 변화 요구됨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빨리, 그리고 확고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책의 장래에 의문을 표시해 왔고 그런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또 전자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제 출판산업은 요원의 불길처럼 다가오고 있는 전자책 분야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분야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출판산업은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한 독서시장을 잃게 되고, 이는 자칫 출판산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전통적 출판산업의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구조의 핵심 분야는 자본과 기술(인력) 및 콘텐츠다. 자본과 기술은 우리의 출판산업체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분야다. 반면 개개의 출판업체들이 전통적 출판행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콘텐츠는 이미 그 시장에 진입한 다양한 기업들이 쉽사리 해결해내지 못하는 분야다. 출판계는 이 산업구조를 지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출판계는 독자적 행보를 통해서 전자책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인터넷의 상업화가 허용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일탈 현상이 전자책 분야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